



대한민국 협동조합 현 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 분석

2013.11.11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만약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의 부족이라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협동조합 교육이나 홍보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50~60대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기존의 자영업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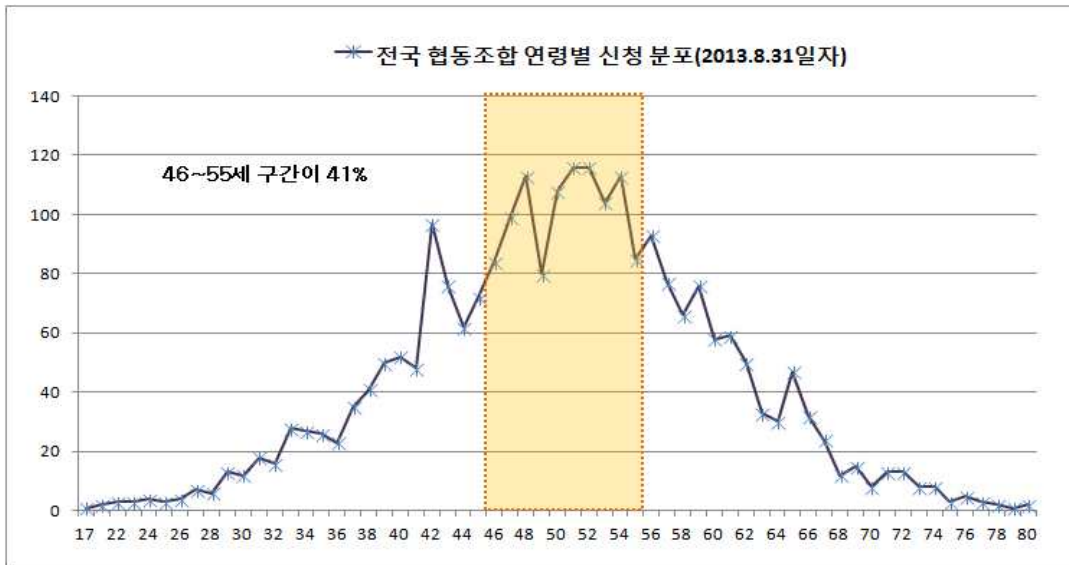
새사연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에 대해 지난 10월 각 세대별 참여를 분석해 보았다.(새사연, “청년들에게 아직 협동조합은 '봄'이 아니다.” 참조) 이번에는 추가로 전국에 걸쳐 신고 된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추이와 특색을 요약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분석된 결과는 2013년 8월 31일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전국 2,530개 신고 된 협동조합 중에서 데이터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2,485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 의해 공식 수리된 신고는 2,391건이었다.

1. 협동조합은 은퇴 세대들이 주도한다. - 50~60대가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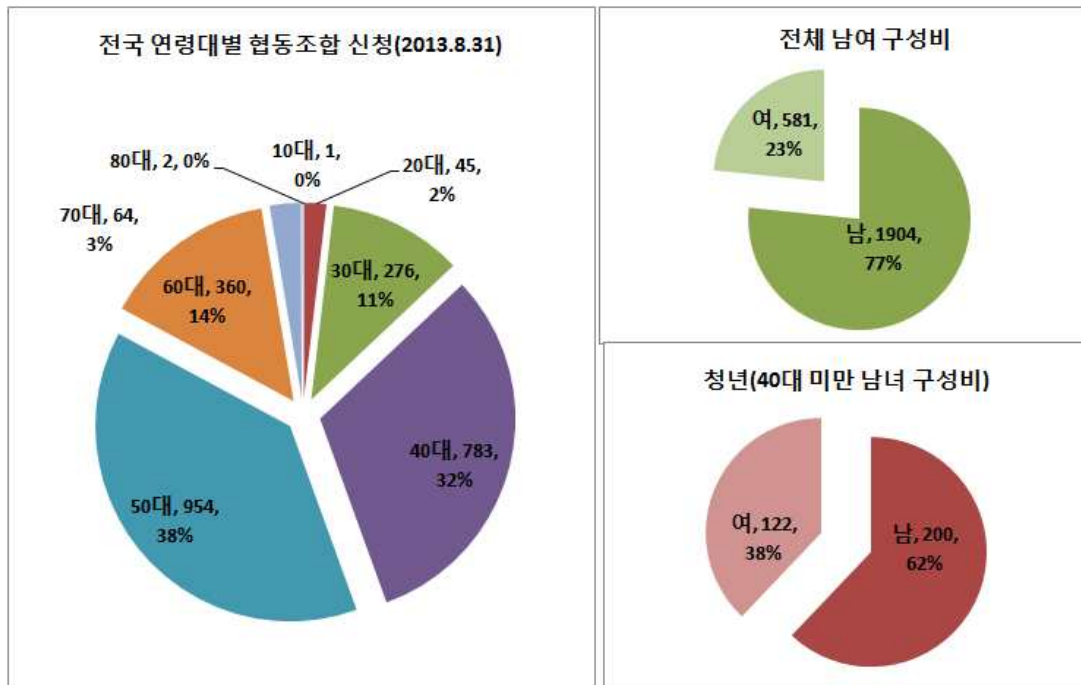
서울시 협동조합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협동조합 창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세대별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풍의 주역은 50~60대 은퇴세대로 밝혀졌다.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대(38%)이고 60대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업 설립자들 가운데 겨우 32%만이 50대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협동조합 설립의 고령화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1 : 연령별 협동조합 설립 분포도]



[그림 2 : 연령대, 성별 협동조합 설립 구성비]



반대로 40대 미만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비중은 겨우 13%에 불과했다. 이 역시 매우 적은 것인데, 일반 주식회사 설립자 연령대를 보면 40대 미만이 거의 1/3에 해당하는 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012년 말 신규법인 설립 기준). 즉 청년들에게 아직은 협동조합이 ‘찾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고령화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협동조합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젊은



층의 진입 부족에 따른 혁신적이고 참신한 시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대체로 남성들이 주도(77%)하고 있는데, 다만 40대 미만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현상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등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층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2. 중 · 장년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기업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출자금(자본금)은 이후 사업의 성패를 예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신고 결과를 보면 출자금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9.1%에 달하고 있어 매우 영세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점은 20대에서 확실히 두드러지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에서 그렇다. 주의할 것은 50대가 그나마 출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 연령대별, 출자규모별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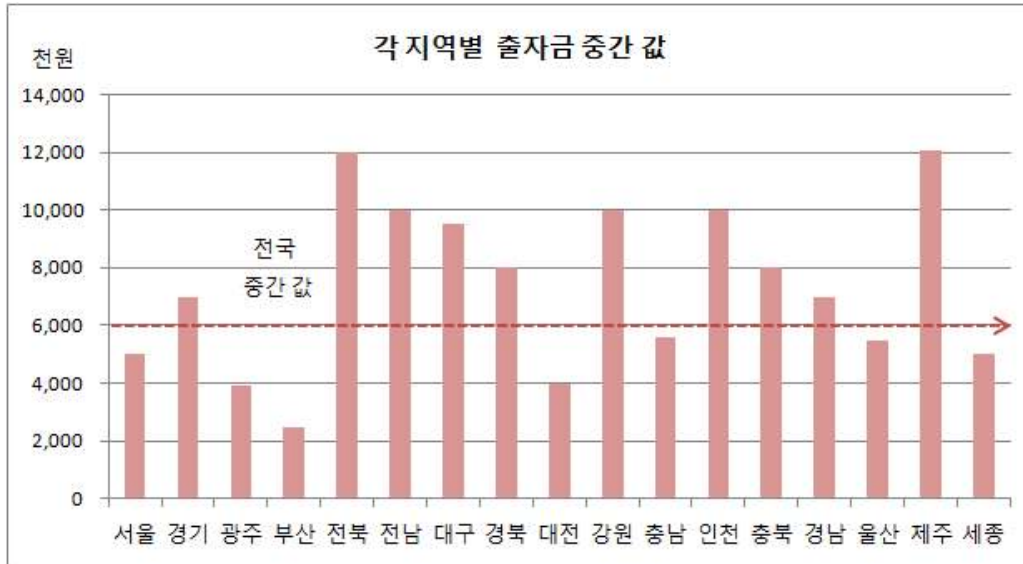
	백만원 미만	천만원 미만	오천만원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10대	100.0	0.0	0.0	0.0	0.0
20대	22.2	51.1	20.0	4.4	2.2
30대	18.1	40.9	32.2	4.3	4.3
40대	13.0	44.2	31.2	6.1	5.5
50대	9.0	45.4	32.6	6.9	6.1
60대	15.8	44.2	28.6	6.1	5.3
70대	10.9	50.0	18.8	9.4	10.9
80대	0.0	50.0	50.0	0.0	0.0
전체	12.6	44.5	30.9	6.3	5.6

3. 부자 협동조합은 서울에 있다?

지역 별로 출자금의 편차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전국적으로 출자금 중간 값은 6백만 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출자규모가 매우 큰 건수가 상당히 있어 평균값이 크게 값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출자금 규모 상위 20위는 모두 서울에서 신고한 협동조합이었다.



[그림 3 : 협동조합 출자금의 지역별 분포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 값 기준으로 2백만 원 ~12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분포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광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출자금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신청이 많을수록 낮은 출자금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 값이 내려간다. 또한 젊은 층이 신청한 협동조합 비율이 높을수록 출자금은 낮아진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하면 각 지역별 편차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특정 지자체에서 일부 큰 규모 출자금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도시와 지역을 막론하고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4. 박원순 서울시장은 활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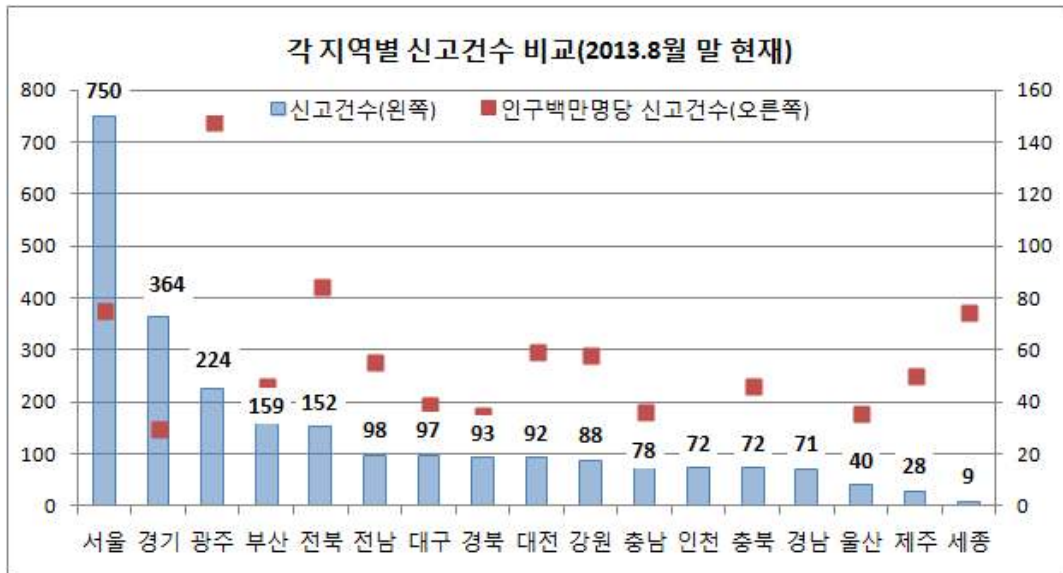
전국에서 협동조합 지역 분포도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고, 이에 비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는 인구대비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이와 함께 전북, 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협동조합 바람이 좀 더 거세게 불고 있고, 인구를 감안했을 때 영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대와 지역을 교차해보면, 대체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50대 > 40대 > 60대 > 30대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전형적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대도시와 수도권에 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도시나 지방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도시



에서조차 협동조합이 청년층들에게 아직은 큰 호소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림 4 : 지역별로 신고 된 협동조합 건수]



다만 광주와 경북, 충남의 경우에는 40대가 50대 보다 더 많고, 부산과 대구는 60대보다 30대가 더 많다. 인구에 비해 협동조합이 많다는 점, 다른 도시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다는 점 등 여러모로 광주는 전국적인 흐름과는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5. 협동조합 유형의 지역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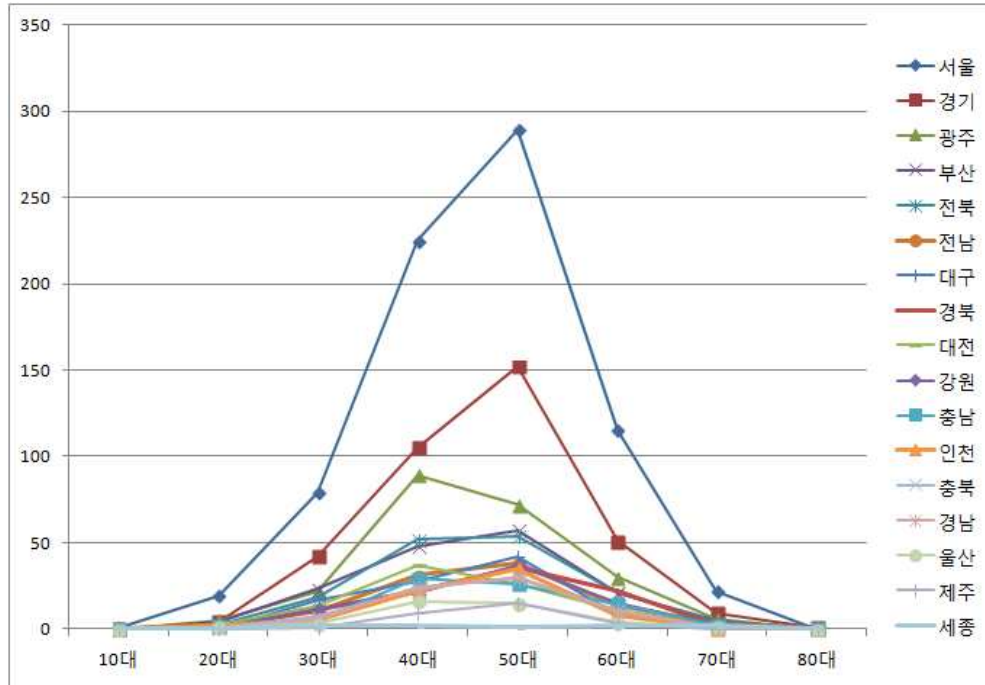
협동조합 유형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사업자 협동조합이 압도적인 가운데 사업자 > 다중이해관계자 > 직원 > 소비자 > 사회적 협동조합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순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유형의 구성비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의 경우 특별히 직원 협동조합 구성이 많고 대전과 서울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별히 제주도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인천과 영남권의 경우 유독 사업자 협동조합 비중이 더 크다. 다만 이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대부분 사업자 협동조합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상쇄된다. 즉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선호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 더 눈에 띄는 것은 전남, 경북, 인천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필요의 편차가 있다기보다는 각 시도의 참여 주체



들 사이에 이해와 공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림 5 : 지역별로 나타난 협동조합 세대 특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	46.9	29.4	10.4	7.5	5.7
경기	76.4	6.6	4.1	1.9	11.0
광주	31.7	40.2	21.0	5.4	1.8
부산	86.2	0.0	0.0	11.9	1.9
전북	79.6	11.2	7.9	0.7	0.7
전남	85.7	3.1	3.1	8.2	0.0
대구	74.2	4.1	2.1	12.4	7.2
경북	86.0	4.3	1.1	8.6	0.0
대전	45.7	30.4	16.3	4.3	3.3
강원	73.9	20.5	0.0	0.0	5.7
충남	52.6	35.9	5.1	1.3	5.1
인천	84.7	0.0	8.3	6.9	0.0
충북	56.9	34.7	2.8	1.4	4.2
경남	77.5	2.8	2.8	12.7	4.2
울산	100.0	0.0	0.0	0.0	0.0
제주	64.3	0.0	7.1	28.6	0.0
세종	44.4	44.4	0.0	0.0	11.1
합계	62.8	18.8	7.6	6.1	4.7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6. 협동조합이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적 제언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추이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세대별로 협동조합 설립 참여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벤처 기업 창업에 비해서도 턱 없이 낮은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의 부족이라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협동조합 교육이나 홍보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50~60대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기존의 자영업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로, 최근 자영업이나 벤처 창업조차 혁신형이라기 보다는 ‘생계형’이 많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라고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에 중 장년이 주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출자금 중간 값이 600만 원 내외라는 것은 상당히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 이후 업무 개시와 운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더욱이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의지할 자금 공급구조도 막혀 있다.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에서는 설립된 협동조합들의 사업운영 동향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자체들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셋째로, 협동조합 설립건수나 설립되는 유형이 지역별로 크게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객관적인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대부분 주관적 요인에 의한 편차일 가능성이 높다. 즉, 각 지자체 별로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정도나 지역의 주민 공동체들과의 소통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고려를 주무부서인 기획 재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1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평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부문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 개혁의 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04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정태인
이슈진단	11/05	유아 공교육, 사교육에 잠식되다	최정은
이슈진단	11/07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문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김수현
이슈진단	11/11	대한민국 협동조합 현 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 분석	김병권